



2019년 7월 28일(제939호) 연중 제17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무엇을 청해야 할까요?”

윗사람에게 무언가를 건의하거나 부탁하러 갈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상대방이 나의 부탁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비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무엇을 청할 때에는 ‘두려움’ 대신에 ‘신뢰’를 가지고 나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1요한 4,16)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13) 나의 필요를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일은 인간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분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느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의탁하며, 간절하게 필요한 것을 청합시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1요한 3,1)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청해야 하고, 또 무엇을 청할 수 있을까요? 서둘러

‘부’와 ‘명예’와 ‘편한 노후’를 청해야 할까요? 아니요. 먼저 성령을 청해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십시오.

그래도 모르겠다면 주님의 기도를 바쳐보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부디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가르쳐 준 기도를 바치게 될 제자들 편에서 꼭 필요한 것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의 회복! 그러나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면 다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윤형식(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별신(5시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창세 18,20-32

회 답 송 ◎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제 2 독 시 콜로 2,12-14

복음 본궤송 ◎ 알렐루야.

○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

복 음 루카 11,1-13

영 성 제 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윤봉문 요셉



성인명: 윤봉문 요셉 (尹鳳文 Joseph)
신분: 회장, 순교자
활동연도: 1852-1888년

윤봉문(尹鳳文) 요셉은 경상도 경주 인근에서 윤사우 스타니슬라오와 막달레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의 가족은 1866년 병인박해로 재산을 몰수당한 뒤 양산으로 이주하였다가 좀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거제도도 건너가 진목정(현,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정착하였다. 윤 요셉의 부친인 윤 스타니슬라오는 그 이전부터 비밀리에 천주교 신앙을 전하고 다녔다. 또한 거제도도 이주한 뒤에는 진 요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입교시켰으며, 이러한 인연 때문에 윤봉문 요셉은 장성하여 진 아네스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1887년 겨울에는 경상도를 담임한 로베르(A. P. Robert, 金保祿) 신부가 신자들에게 성사를 주고자 거제도를 방문하였다. 이때 윤 요셉은 거제도의 회장으로 임명되어 로베르 신부를 안내하였는데, 그해 거제도에서는 15명의 어른이 세례를 받고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로베르 신부가 거제도를 떠난 이듬해 봄에는 그곳에서 박해가 시작되었다. 통영 포졸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체포함으로써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일으킨 박해였다. 이 박해 때, 윤 요셉은 다른 교우 3명과 함께 체포되었는데, 그 혼자만 통영으로 압송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모진 형벌에도 관장이 강요하는 배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영 관장은 이 사실을 곧바로 대구 감사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감사는 '천주교 신자들은 모두 도적과 같으니, 윤봉문을 진주로 이송하여 처형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따라 윤 요셉은 진주로 이송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십계명을 외우면서 신앙을 굳게 증언하였다. 그러자 관장은 그를 하옥시킨 뒤 그날 밤에 옥리들을 시켜 교수형을 집행토록 하였으니, 그때가 1888년 4월 1일(음력 2월 20일)로, 당시 윤 요셉의 나이는 36세였다.

복 음 묵 상

- 배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그림자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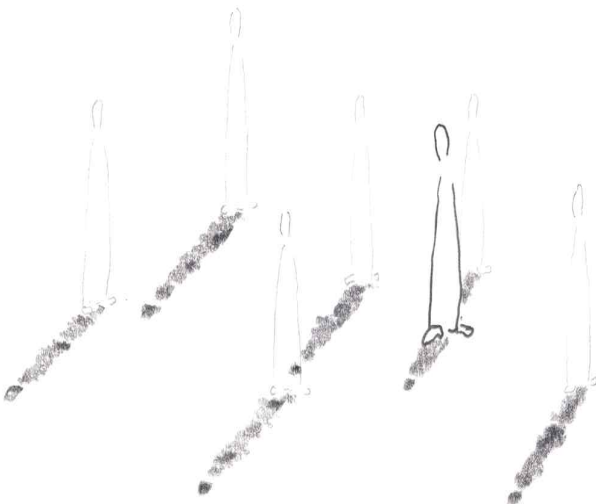
저 사람은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저 이는 말이 많아
저 자는 건방져,
잘난 체 해, 재수 없어.

이런저런 이유로
주위 사람 모두를
투명인간, 그림자 인간을
만들었다.

그럼
나는....

내가 옹서한 것이 하늘에서도...



성화이야기

세레지 요한 제단화



오른쪽 패널 세부도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본 오른쪽 패널의 세부도를 보면서 요한 묵시록의 5장부터 12장의 내용이 어떻게 그림에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다. 5장에 일곱 번 봉인된 두루마리와 어린양이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생물 하나가 차례로 나온다.

처음 나오는 생물은 흰말을 탄 활 쏘는 이로, 그림의 배경 속 맨 왼쪽에 나온다. 둘째 봉인을 뜯었을 때는 붉은 말 위에 큰 칼을 찬 이가 나오는데, 멍렁은 이것을 검붉은 말에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기사로 표현하였고, 아래쪽 물에 그의 이미지가 잔상으로 표현되는 것 같은 섬세한 묘사까지 더하였다. 이 사람은 땅에서 평화를 거두어 가는 자로, 사람들이 서로 살해하도록 하는 이다.

그다음 셋째 봉인을 뜯었을 때 나온 것은 손에 저울을 들고 말을 타고 있는 이며, 네 번째 봉인은 '죽음'으로, 말을 타고 저승이 따르고 있다고 성경에 적혀 있다. 멍렁은 이것을 거대한 불타는 괴물이 입을 벌리고 이 자를 쫓고 있는 것으로 표현했는데, 이 괴물의 입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그 안에서 영혼들이 괴로워하고 있다.

이 이후로 다섯째와 여섯째, 일곱째 봉인을 열었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 차례로 멍렁의 제단화 속에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일독을 권하며, 어떻게 글로 쓰인 추상적인 내용들을 제단화로 표현했는지 발견해보시길 바란다. 감탄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우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7주일: 진해해군 강재원 신부

◆ 교구장 동정

- 화성대(10전비단) 성당 사목방문
 때: 7월 28일(주일)

- Knights of Columbus 연례모임
 때·곳: 7월 29일(월)~8월 10일(토), 미국

◆ 2019년 제17회 교구청소년대회

때·곳: 7월 29일(월)~8월 2일(금), 베트남 다낭

“모든 이를 심기는 삶” - “네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요한 13,14)